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新說小書
流
編
루우
중경(京城) 및 평양
평

樂淳金

文學士町田長作君 著

鞆日語舌戰

實價三十五錢
郵稅八錢

李鍾麟 著

新篇道德經

定價二十五錢
郵稅八錢

數學大家 安一英 著

算術問題新解法全書 (完全數部)

實價五十錢
郵稅八錢

四書第一篇孟子

定價壹圓
郵稅十二錢

部輯編館書及普
纂編

四書第一一篇論語

定價壹圓
郵稅十二錢

四書第二篇庸學

定價四十錢
郵稅八錢



쌍
옥
루

雙玉中篇
淚



데일회

쌍
옥
루

리괴장은 쌀 경지를 다리고 스방으로 명승지디를 츠즈단이며 물도흔 곳에서
 는 풍경도 완상하며 경지로 향야금 조곰이라도 괴로움과 근심을 끼치지 안
 이하고 그향고저하는바를 츠조 마음을 쾌락케하여 주어 병을조섭식이며 리
 괴장은 경지의 병증세 감하여가는것만 날노기다리고 또는 그외에 더질거운
 것은 업는것갓치 정성것 치료한결과로 일년이 못되어 경지의병이 쾌복되고
 몸이충실하여 전일아릿다운 얼굴이 다시도라오니 리괴장의 절거움은 비길디
 업스며 죽은지식을 살너닌것갓치 총의(寵愛)하는마음이 일층 더하여 지괴
 의 늘근몸이 일년동안에 지닌 고성으로하여 더욱이 늙엇것만은 그도아지못
 하고 다만 쌀의 장리를 위하여 복록을 원하고 죽원할뿐이라
 그히도 말셔다가고 몇칠만지니면 리경지가 십팔세를 맞는지히를 당하게되었
 는디 경지는 부친과 한가지로 오리스동안 병을 가지고 스방으로 도라단이다
 가 여러히만에 공쥬본제로 도라왔더라

(1)

공쥬읍니 사름들은 여러히만에 무스히 도라온 리경즈를 반기며 깃거안이향
 는 사름이업고 읍니 사름과 근촌사름들은 덕일닷도와가며 경즈를 위하야 오
 리셔올서 고싱하엿겟다고 톨을가져오는 사름이며 계란가져오는 사름이며
 실과가져오는 사름씩히오는 사름이 부지기슈라 공쥬일경은 한참동안은 리경
 즈의 더욱 아람답고 점자나져서 도라온것을 쳐쳐마다 녀즈가 두사름만 모이
 면 그 소문이라라 다른사름은 경즈가 중병으로하여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
 나셔 그부친과 한가지로 고향에 도라올을 축하할뿐이오 조곰이라도 경즈의
 비밀은 일잇는줄은 전연히 모로는지라 하물며 아히셔지 하나 나앗는줄이야
 엇지 삶에나 뜻하리오 공쥬근방에서는 소문이 나기를 이척시 엇어가는 사름
 은 참전성에서 복을라고 난 사름이라고 서로부러워 하는터이라

리경즈가 저쳐하랴할때에 유셔와 룡산 김쇼스의 텨보는 거의 일시에 리과장
 의 손에 드러가노코로 리과장은 이와같은 일을 집안사름에게도 말하지안이
 하고 다만 쌀이 급한병으로하여 텨보를 부쳤다고 셔올로 올라왔노코로 그
 실상 뇌용은 한사름도 아지못하노터이니 하물며 집안사름외야 누가그스적
 을 저셔히 알니오 리과장이 마음먹은바와가치 지금은 누구던지 경즈의 결벽
 무구(潔白無垢)함을 의심치 안이하며 그동리 김승지의 뇌외도 어렸슬씩부터
 나의 조손가치 사랑하든 경즈를 티설만천들 품힘부정 하엿슬줄을 의심하엿

스리오 이와가치 공쥬일경은 리경즈를 녀즈의 거울노숨아 셔올가셔 유학하
 면 저와가치 녀즈의 품위(品位)가 높하지는출로 탄상(嘆賞)하며 부러워하야
 일경이모다 칭도할뿐이오 남모로노 호올로 근심을 기쁜밤에 하늘을 울어々
 부르저즈며 살오는 녀즈가 잇는것은 한사름도 아지못하노터라

다만 사름마다 마음의 한가지 고이히 생각되는 일이잇스니 이는 경즈의 얼
 골이라 경즈는 아죽 얼골의 슈척호 괴운이 아죽도 꽤히 평복지 못하얏노고
 로 남은 생각하기에 지금 경즈의 나흐로 말하면 전신에 살이올나 얼골은 합
 박썩송이갓치 되엿슬터인터 도로혀 그장 년로호 터도가 뵈이며 링링호 괴운
 이 썩스니 이는 중병을 지닌사름의 얼골이라고 짐작하겟스나 다만 량미잔으
 로 한덤이상스려운 괴운이 잠기엿스니 전일에는 근쳐사름들이 경즈의 쾌활
 하고 슨죽호 얼골을 한번보면 우슈스려가 모다 눈독듯하고 정다운 마음이
 스스로 나더니 지금은 량미잔에 보이는 괴운이 남보기에 점자너보이며 전일
 에는 한번 그모양을보면 저절로 우숨이나오고 하더니 지금은 스스로 존경할
 마음이 싱기게 될만호 귀부인이 되엿더라 그러나 그촌에 여러량반들은 경즈
 가 도라오면 내아달과 혼인을 하랴하고 날로기다리던 터이러나 맛참니 온후
 그모양을보니 식골농민의 안히가 되려할사름이 안임을 짐작하고 그부모에게
 말도 하지안코 제짐작으로 단렴한사름도 몇사름인지 모를지라 그러나 경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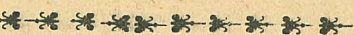


는 비록 형용은 무한한 풍상중에 변하였슬지라도 그 아름다운 마음은 전이나
지금이나 일호도 다름이 없더라

데이회

리경조가 공쥬로 내려온지 벌써 일년이넘어 거의 이년이 되어 경조의 나
히 갖스물이 되었더라 경조의 아름다운 티도는 더욱 그림갓치 어엽부며 고상
(高尚)한 행동도 점점 더 높더라

경조의 몸에 비밀한 스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에 머러져서 지금은 엇더
한 사람이던지 그 비밀을 고하는 사람이 잇스면 도로혀 그 고하는 사람을 거
짓말이라고 나무랄만큼 동리의 신용을 엇엇더라 리괴장의 그 깃거운 마음은
장차 엇다가 비호리오 부녀스이에 도 이제는 그 일을 이져바리고 지닌일을 다
시 말호외회도 업더라 그러나 경조는 진실로 그 일을 이졌는지 모로리로다
모로는 사람은 아지 못하되 경조의 은은히 보이는 티도중에 전일 심호고싱을
맛보든 흔적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현저히 나타나니 지금 비록 서병삼에게
티흔 련련한 정리는 업스나 처음으로 바든 사랑의 흔적이 천백년이 가기로
엇지 업서 지리오 그 중에도 은의(恩愛)의 기반(羈絆)을 싣을 슈업시 마음에 항
상 걸니는 것은 전일에 나온 아달의 일이라 리괴장은 전혀 경조의 장리를
위하야 잘되기를 비노라고 눈이어 두어 경조가 지식잇다는 말을 남에게 흘리니



무론 만무한 일이 어니와 경조도 속이여 아지 못하게 하고 나온지 수십일을 지
니지 못하야 죽었다 함의 경조는 그 말을 진정으로 듯고 처음 몇칠동안은 심히
불상히 녀이 었스나 찰하리 아비업는 지식의 세상에서 그늘속에서 자라는 것
보다 이 요란한 풍파를 격지 안이 하고 저 세상에 가서 잇는 것이 첫지는 제일 신
에 유익하고 들지는 나의 몸이 세상에 잇슬 동안에는 잠시라도 잇고 마음을 편
안이 할날이 잇스리라 하여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 지니더니 차차 날이 갈수록
육성감을 흠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친이 나로 하야곰 다시 생각지 못하게
하노라고 진즉 죽었다고 말함이 안인가 하고 의심하야 기회를 타서 그 부친의
마음을 찌셔 보아도 좋사 죽은 줄로 말하느니라 그럼으로 경조는 부친의 말
숨을 거스리지 못하고 그러하듯 하게 밋고만 지니나 속마음에는 진정 죽었
는지 지금도 살아서 부모를 생각하느니 결명기 어렵다

그 일을 탐지하려 하면 녀편네의 몸으로는 능히 할 슈업는 고로 전일 몸을 구하
여 주던 김쇼스는 필연 그 일을 저서히 알듯 하기로 심중의 스연을 저서이 괴별
하얏더니 리괴장이 전일 김쇼스와 약속한 일이 잇는 고로 그 회답에 그으히는
발서 제상을 찌는 자가 올이다 하얏는지라 경조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 죽은 줄
로 밋엇더라 그러나 이것이 후일 의심의 단서라 만일 조리가 서울을 갈과
회가 잇스면 김쇼스를 만나서 스실을 저서히 물으려 하얏더니 불행히 김쇼스

도 병으로 하여 작년 겨울에 다시 도라오지 못할 길을 떠났더라
 김소스의 죽은 괴별을 듣고 리괴장부녀가 일시는 심히 비창하였더라 그러나
 경조가 나의 의심을 풀어 말할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업슴을 생각함이 고단함이
 비홀티 업스나 이 세상을 이몸이 살아잇는것은 다만 나의 부친을 위하려함이
 니 부친의 안심하시도록 하는것이 나의 도리라 하여 어린희의 스승존망은
 다시 못지도 안이하거니와 후시 그 생각이 날제 잇드리도 스스로 마음은 쉬
 저저 업시하였더라 그러나 경조가 남에게 말할슈업시 스스로 내몸을 책망하고
 내마음을 꾸짖는일이 잇스니 전일 정신착란(精神錯亂)하였을때에 나의 손으
 로 괄을들고 나의 조식을 죽이고저한 일이라

다 힘이 쇠약한 팔기운이 바로맛지는 안이하야 어린희의 목숨은 부지하였
 스니 제 조식 죽였다하는 오명(汚名)만일 그때 손이 떨어지지 안이하고 바로드러
 갖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조식 죽인년이란 일흔을 드를번한 생각에 몸서서리
 가 끼친다 그러나 이런말은 하기도 오히려 붓그러운고로 그부친에게도 말하
 지안이하고 그부친도 실성하였던 당시일은 경조가 모로리라하여 입밖에도
 니지안이하았더라

무남독녀를 스방으로 구혼함의 구수의 인물로 말하던지 지산으로 말하던지
 일군의 데일이라 경향에서 통혼하는 사람이 잇스나 흥상 경조가 방희하여 파
 의하였더라 리괴장은 다만 외설을 스위나 상당한 사람을 엿어 저의고싱도
 잇게하고 늙은 조괴의 몸도 얼마큼 위로코져하여 급급히 스위를 구하나 일일
 히 경조가 불령하며 경조를 위하여 하는일을 경조의 마음에 조곰이라도 부
 족하면 신랑의 저목은 엿다하던지 못지도 안이하고 파괴하니 그후로는 식골
 구석에서 파묻치여 농스나 짓고하던 토반의 조질들은 경조에게 장가가고져
 하는마음은 조곰도 두지안이하고 리괴장은 경조의 허락을 바들만흔 스위스
 감이 나오기를 주소로 좇수하였더라

데삼희

리경조는 처음으로 남녀사랑에 병들어 나을도리가업는 흠절을 바든후로 붓
 터는 스나희라 하는것은 갖가지 하지 못할것으로 써닷고 임의 남조에 더하여
 불히와 갖치 삿삿한정은 씌어지고 조괴는 일성을 독신으로 지니며 조선사업
 에 일신을 붓치여 지니고져 하였더니 다만 한분계신 부친이 눈물을 흘리며
 경조의 결심을 도로키고져 하여 말유하는디 마음이 쓰러질뻔한이라 경조는
 조미업는 세상일지라도 한낱부친을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터이니 무슬일
 이던지 부친의 마음만 편안이 할일이면 사양치 안이하리라고 생각을 돌니여
 드터여 다시 혼처를 구하여 출가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나 아즉 나히적
 은고로 이삼년동안은 이터로 집에서 지니기를 자로 그부친적 잔절이 권하였더라

그러나 그부친 리과장은 임의 여성이 얼마 남지 못한 몸이라 자연 마음이 쪼
쪼하여 이날도 경조를 불너 압해안치고

『이이 경조야 일상하는 말을 되하는 것 갖다만은 너도 말서 나히올에 갓스물
이 되였고나 이 시골사름들은 열육칠세만 되면 말서 혼인이 느졌다고 야단
이고 성례는 하지안이 하였드리도 정혼은 다하였지 갓스물 쓰지 잇는쳐녀
가어디 잇단말이나 열아홉살만 되어도 말서 혼쳐엇기가 어려운디 더구나
스무살이라니 말이되느냐 병신이 안인다음에야 갓스물 쓰지 웨잇단말이나
부모의 눈이라 옥심것 보아서 그러흔지는 알슈업다만은 너만흔 인물로 사
위를구한다하면 말로 되여너도록 덤빌터인디 너는 밤낮조곰만 참어라 조곰
만 참어라하고 한이 업스니 장차 엇지하든 작덩이나 너도 나히 말서 스
무살이 되였스니 더강 요량은 잇겟고나 네 아비마음도 좀 싱각히 주어야지
응경조야』

우연이 치여다보니 부친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였는지라 날로하야 이와갓
치 근심을 하는도다 하는싱각에 가슴이 무여지는듯하여 고기를 속이고 급
히 대답을 하지못하는것을 부친은 다시 거듭하여

『경조야 잘싱각히보아라 나도나히 지금 료십이니 먹을나 다먹었다 같길도
멀지안이 하였는디 네몸하나나 엇더케 성취식여서 손조놈의 얼골이나 보

아야 내 원이 풀날터인디 그러치못하면 죽어도 눈을감지 못하겠고나 나는
이세상에서 바라는것은 아모것도업고 네몸하나뿐이로구나 그런데 네몸하
나를 성취시키지지는 내속의 근심이 한시각인들 엇지못겠느냐 나는 요
석는 밤이나 낮이나 노이 싱각이다 그러나 설마 넌들 초일피일하여 평게
만하고 날만보되다가 인의 평성을 이모양으로 보되려고 작덩이야 홀리가
잇겟니 응이이 싱각으로 나를 속여가잔 작덩은 안이지 응』

경조는 눈물을 흘리며

『그처럼 아버지씩 심려를 끼치니 나는…… 나는 엇더타 말슴 엇술수가업슴
니다 무얼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런불효의 마음을 먹을리야 잇겟습닛가 아
버지 근심을 아모도록 풀어드리도록 하겟습니다만은 나는…… 나는』

하며 말을 다 일우지 못하는것을 그부친은 압호로 닥아안져서 등을어로만지며
『그러나 나는 나는 나는 엇지 하였단말이나 부모에게 무엇을 숨길것이 잇
스며 무엇을 말못할것이 잇겟니 그러면 네가 다른데 어디던지 유의흔디
가잇느냐』

『아니요 유의가 무슨 유의야요 나는 한번더럽힌 몸이라 아버지씩서 깃거
워할실만한 스위가 오지안이 할듯히서 그리요』

리과장은 황망히 손을 너여져으며

『이이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싸진일 갖흐면 당초에 거정홀것도업다 누가 너 지닌 스적을 알겠니 그것은 그때 네가 마귀에게 홀녀서 흥흥쌈 쉼세음이 지 지금와서 네몸이 터럭뭇만치라도 더러울것은 업다 빙옥갖흔 몸이되얏는걸 누가 전일이야 안단말이나 도적이 말이져리다고 네가 너혼자 공연이 근심을향고 거정을향지 네입이나 내입으로 말만안이하면 그일을 누가 안단말이나 그져 전스는 아조 이져바리고 늙은 네아비의 마음을 일시라도 편안히향야 주는것이 너의도리가 안이겠느냐 응 이이 그러호지』

경조는 말이업는뒤 부친은 다시 말을계속호여
『너도 생각을 감안이 호여보렴으나 너의 전스를 아는사람은 먼곳에 잇슬뿐 안이라 내가 곳곳이 차져단이며 그런말은 입밖게 너지말나 부락호얏고 룡산 김소스는 그잔 죽엇다호니 더홀말업고 오정당이라호는 사람은 싱스를 모르게 되고 그때나은 어린놈이라야 말서 이세상을 떠났스니 이세상에셔 그일알사람이 누구란 말이나 내나 이전에 호든근심은 죄다 바름에 붙쳐 보니고 지금 부터는 쾌락흔 세상을 보니야 안이호겠니 내속에 은근히숨기고잇는일이 잇스면 제마음에 조연히 죄만스려운일이 잇는것이지만 그리호기에 아쥬이져바린다호는 말이야 이세상에는 별々일이 다 만으니라 과연 홀쳐녀가 사나희를 엮는것을 그부모가알면 불시로 식집보닌일도 잇스

닛가 말호게되면 이런것이야말로 정갈 당장에 더럽힌몸이지 실상 참식집가셔 면목이 업겟지만은 그와 이와는 스정이 다르다호는 말이야 응 이이 앓가도 홀말이어나와 너는 말서 더러웠든몸이 다시정결히진 세음이닛가 다시는 전스가지고 말호것은 안이니라』

데스회

리경조는 흥중에 만감이교집호야 한참동안은 능히말을 일우지 못호다가 간신히 고기를들고

『아버지 아버지씩셔는 나때문에 이이삼년동안을 못호실 고성만호셔셔 별안간에 저렷케 빙발이되신 생각을호면 나는 그만』

호며 울음이막혀 코소리를호며

『살을 어여니는것갓치 마음이 쓸이고 못견디겟셔요 인제는 제몸은 분골쇄신이 되더리도 아버지씩셔만 마음을 편안히 호실슈가 잇스면 호겟셔요』 호는말을 부친은 급히 막자르며

『이이 네말을 들으니 너마음이 얼마큼 기분지 모로겟다 그러나 네몸이 분골쇄신이되드리도 관계치안타호는 말은 나듯게 디단 좃치못호다 네가아 죽도 너마음을 자세 이지못호는게로구나 너야 살기로 몇칠살겠니 너몸은 아모렷케 되더리도 관계업스나 단지 나는 자나셔나 잇지못호는것은 네몸

하나 생각해 보라 그리는 것이지 너만 도흔 남편을 엮어서 잘사는 것만 보게 되면 니 몸동아리는 아모런게 되여도 관계업다 니가 죽어서 네 몸이 잘된다 할 것 같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라도 죽을 터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저미있게 사는 걸 보아야 니가 눈을 감고 죽겠다 너 다려 니 마음을 살피달라 흥는 것은 니 몸을 유익하게 흥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네 몸을 위혀서 흥는 말이지 아모도록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잇스면 시집갈 생각으로 잇거라 너 실라 흥는 사람은 니가 또 권하지안이 할 터이니

경주는 부친의 사랑하느니 마음에 감스흔 눈물이 옷깃을 적시며

『무신 말씀이던지 아버지 말씀은 다 순종하겠스니 아버지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오 그러나 식집을 가드리도 제 마음에 죄만스러워셔 엇지히요 아버지께서 말씀은 나만 말하지안이 흥면 당초에 알 사람이 업다 하시나 하느님이 밝게 내려다 보시는 아리에서 엇지 그렇게 흥닛가 전일 죄상을 모다 조복후 뒤에 조세흔 리력을 알고서도 나를 안히로 숨겠다 흥면 그때는 마음을 못코 그 남편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리괴장은 잠잠 놀니며

『글세네 마음에야 그 생각이 잇슬는지도 모로겟지만은 감안히 좀 생각을 히보아라 니 몸은 한번 더럽혔든 몸이 오흥고 아조 문패를 길어 노으면 엇던 사람

이 도와서 오겟느냐 오려 흥든 사람이라도 파흔 흥고 천리만리 다라 날 것을 꿈에도 그런 마음은 먹지 마라 내가 빌 것이니 그저 눈 딱 감고 잇스려 무나』

리경주는 여긔 대답은 업고 얼골을 들어 부친을 보며

『그리고 조식 서지 잇는 것이 엇지 그렇게.....』

리괴장은 경주의 얼골을 정신 업시 한참 드러다 보다가

『그어린 것이 살아서 잇는 것도 안이고 누가 알 사람도 업는 터 웨 또 그리 흥느냐』

『그리도 내 마음에는 그어린 것이 아주 죽지는 안이 흥것 못 흥 터요』

『이 글세 내가 웨 너를 속이려 흥겟니 덩녕 죽었스닛간 죽었다 흥는 말이 내게도 첫손 조 조식이라 귀엽기가 짝이 업는 터 만일 살아 잇슬 것 못 흥면 별서 다려다가 집에 두엇겟지 엇다가 너 버려 들리가 잇겟니 너는 공연히 쓸터 업는 의심을 다 흥고 잇고나』

『아이고 죽었스면 오혀려 다 흥 흥 의다 살아 잇스면 내가 덕 볼 낫치 업슬 터인 데요』

흥며 경주는 안식이 변 흥며 눈에 스투흔 괴식이 낫하난다 리괴장은 황망히

『이의 불 낫시 업다니 그것 또 무슨 말이나』

경주는 숨을 휘 흥고 너 여쉬이며



이 도와서 오겟느냐 오려 흥든 사람이라도 파흔 흥고 천리만리 다라 날 것을 꿈에도 그런 마음은 먹지 마라 내가 빌 것이니 그저 눈 딱 감고 잇스려 무나』

리경주는 여긔 대답은 업고 얼골을 들어 부친을 보며

『그리고 조식 서지 잇는 것이 엇지 그렇게.....』

리괴장은 경주의 얼골을 정신 업시 한참 드러다 보다가

『이 글세 내가 웨 너를 속이려 흥겟니 덩녕 죽었스닛간 죽었다 흥는 말이 내게도 첫손 조 조식이라 귀엽기가 짝이 업는 터 만일 살아 잇슬 것 못 흥면 별서 다려다가 집에 두엇겟지 엇다가 너 버려 들리가 잇겟니 너는 공연히 쓸터 업는 의심을 다 흥고 잇고나』

『아이고 죽었스면 오혀려 다 흥 흥 의다 살아 잇스면 내가 덕 볼 낫치 업슬 터인 데요』

흥며 경주는 안식이 변 흥며 눈에 스투흔 괴식이 낫하난다 리괴장은 황망히

『이의 불 낫시 업다니 그것 또 무슨 말이나』

경주는 숨을 휘 흥고 너 여쉬이며

「아버지께서 내가 그일을 모른줄 아세요 나도다 아는디요 그때만일 남들이 말니지만 안이하였더면 제손으로 제죽식을 죽이고 남의게 루명을 드릿슬길 그리시오」

리괴장은 경주가 실성하였슬때의 일은 아지못하는줄 알았더니 이말에 또 혼 놀니여

「내가 그때일을 안단말이나」

네 다알고말고요 이런무서운 죄를 질번하던 계집이 시침을 뚝 떼이고 염체 도케 었지남의안히가 되겄슴닛가 암만히도 하는님이 무섭습니다」

항며 말을 맞치고 그즈리에 업드러져서 운다

리괴장도비창흔 마음을 금치못하며

「네말도 올은말이다 그러치만 본 정신으로 할것이 아니라 잠시간 병으로 항야 그러하였든일을 누가 흠절노 잡을리가잇니 나역시 내가 그일을 괴역하였슬줄은 몰났더니 지금이야 비로소 알았다 그져 너는 아모소리말고 나항라난다로 항여라 나종에라도 내게는 루를 셋치지 안이항도록 할것이 니내가 다 담당항마 내가 목숨을 업시항더리도 네몸에는 무사하게 홀터이니 아모념려말고 내원을 맞쳐서 암전흔 남편을 엇게항여라 이의 경주야 이비가 이럿케 합장을하고 비다십피하니 너마음을 편안케항여다고」

리괴장은 흐르는 눈물이 쌀의 무름우에 썩러진다 경주는 「네」 하며 뒤답히는 목소리가 슈구리고 잇는 고기아리로 잔신이 나오느티 머리뒤에 썩진 조화(造花)꽃 입파리만 발々떨떨이라

데오회

공주군명망가(公州郡名望家)로 성명이 일군에 현저흔 김승지는 동리근처 청결유벽(淸潔幽僻)한곳에 집을 서로히 미슈항여 가옥을 일신기축항여 동서양절충제도로 슈총집을 나라갈듯시 지엿스며 전후정원에는 슈목화회(樹木花卉)가 운치를 극진이항여 심엇고 석상에 말근식암은 스면으로 굴곡항야 흐르며 송하에 즐고잇는 두루미는 이세상의 한가흔 결을을 홀로 점령흔듯항여 사름으로항야금 이곳을 한번보미 유한상쾌(幽閑爽快)한 마음이 스스로 감동될만항니 일은바 공주일읍의 쇼공원(小公園)이라 항여도 가항깃더라

김승지의집은 그곳으로부터 남편으로 일마장이나가서 잇는디 와가스오십간이오 틱지가슈천평이라 일군에서 전일부터 유명흔 대가로 지목항는 집이어늘 무엇이 부족항티가 잇서々 이와갓흔 큰집을 서로이 장만항였는고항며 모다 의심항던 바이러니 그후에 얼마 안이되여서 서울로부터 소년지상 한사름이 그별장으로 내려와 거접항니 이쇼년 지상은 김승지 부인의 천정죽하되는 사름이니 그곳으로와서 거접흔후에 그동리 사름들은 었더흔 지상이 왕립항

셋노함며 단도와 그 지상을 추양함며 알고저하니 이는 본리 김승지의 그 고을
 에서 엇은 신용이 그 린척되는 사름에게서 지 밋침이라 함겟더라
 이쇼년 지상은 스월초순년에 이곳으로 이접함였스니 두견진달너 잉도화가
 처처에 피기 시작함였는디 도회사 사름은 물론이어나와 초중사름이라도 즈연
 히 마음이 셔셔 진정기 어려운데이어늘 이지상은 변화함것을 피함고 한적
 함곳을 취함야 이고을로 내려와스니 문져 이쇼년지상의 력스를 티강기륙함
 겟노라
 이지상의 일홈은 정옥조(鄭旭朝)오 디위는 종이품(從二品)이오 년과는 이십
 팔세라 명문거족의 후예(名門巨族後裔)로 즈쇼로 지덕이 범비함야 어려서부터
 터 신동(神童)이라 날가르더니 일즉이 일본동경에 류학함야 데국티학 철학
 과(帝國大學哲學科)를 맞치고 문학사(文學士)의 칭호를 엇어 가지고 도라와
 청운에 종스함의 슈년지년에 디위가 학부협관에 니르렀더라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부인을 마져와스며 또는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을 겸임함야 시
 무함얏스며 또한 즈과는 풍속기량(風俗改良)과 녀즈교풍(女子矯風)함는스업
 에 열심 종스함며 녀즈교풍회(女子矯風會)의 스업이 일일진보되어 장리유
 망함 쇼망이잇는디 일으게함것은 전혀 정옥조(鄭旭朝)의 열심진력함 호함이
 러라

정옥조가 이와갓흔 스업에 분휴함에는 확실함즈겨을 가지고 잇스니 이는 대
 학교에서 공부함씩부터 품행방정함기로 유명함야 졸업귀국함 후에도 일즉이
 화류장(花柳場)에 발을 드러노은 일이업스며 함상 즈과가 생각함는바는 몸
 이셔민(庶民)의 슈반(首班)으로 국가의 책임을 맞흔사름이 되어잇는 이상
 에는 가장 품행을 삼가어 위로는 황실을 받들고 아리로는 국민의 모범이 되
 기를 힘쓰지 안이함면 불가함다함야 스스로 곱히 경계함는러이라 그럼으로
 천죽잔에서라도 왕왕불미함 말이 들니는셔는 반죽(班族)의 체면을 타락케함
 다함야 심히분기함며 풍속을 기량함는디는 먼저 반종(班種)을 기량함는디
 잇다함야 이방편을 또 진력함더라
 다만 정옥조의 한 결점이라함것은 심히 엄혹(嚴酷)함야 너그러운 괴운이 적
 은고로 함상 즈과의 엄중함디만 비교함야 쇼곰도 사름을 용서치안이함며 심
 함디 일으러셔는 사름의 악함일을보고 그사름의 쇼함일샤지 등기함는니 이
 에 일으러셔는 국량(局量)조분 사름이라 일켜를너라 비유함건디 대해의 청
 락을 물론함고 아을나 마시고즈함는 판디함곳은 정옥조의 티함야는 구함랴
 함여도 호발만치도 업스며 엇더함 사름은 비평함야 말함되 인정도 모로고
 남녀의 이정도 아저못함며 즈비심(慈悲心)이라고는 약에쓰려함여도 웃지못
 함 철석심장의 남즈라고 썩져는 사름도잇스나 정옥조는 결코 이와갓쳐 심함

데류회

남아는 안이라 생각건디 정옥조의 온화한 인정은 타인보담 김히심중에 잠겨
잇스나 아즉 표면에 낫하날 기회를 엿지못함이 안인가 의심이더라

루 옥 쌍

그러나 정협관의 위인을 링담은 남조라고 사름마다 말하나 디기 정협관은
어려서 부터 링담한 가정에서 양육을 바든연고러라 정옥조 모친은 일즉이
별제하고 유치할때부터 야심한 계모슈하에 잘앗는고로 조곰도 가정의 온화
한 귀운은 밧지못하야 즈연히 링담한 성질이 데이(第二)의 천성(天性)을일
음인가하나 정옥조는 결단코 무즈무정(無慈無情)한 남조가 안이오 다만 죄
악을 김히 미워하난 마음만 비상히 발달한 연고로 죄악으로 관련한 일에는
전혀 인정을 희성(犧牲)에 이바지 할너라 숭하다 싹싹한 인정의 취미를 히
셔지 못하난 사름된 정옥조는 완연히 후독한 옥리(獄吏)와 갓흔 사름이 되
엿더라

정옥조가 무슴연고로 이러흔 원방시골로 내려와노요 그이히는 정씨 가정상
에 일종비극(悲劇)이 잇섯스나 글로인하야 정협관은 실망(失望)한 사름이
되여 이와갓흔 시골에 은거코져함이라

정옥조는 일본에서 유학할썩에 부모는 임의 구물하고 남녀간에 다른형데업
고 독신의 몸으로 귀국후에 부인을 마졌더라 정협관은 근검엄정(勤儉嚴正)하

루 옥 쌍

거늘 그 부인은 그러치 못하고 만스에 스킨를 극히 조와하며 가정의 규모를
문란케함으로 항상 너외간에 의스가 화합지못하야 암상에션 고목갓하야 두
사름의 스이가 날로 위태하더니 그부인은 방즈히 남편의 눈을 괴이고 밧그
로 타인 남조와 서로 정을상동흔일이 잇서 그후정협관이 아난디 일으러더라
스스로 인민의 모범이 되고자하여 가장품행을 근신하든 정옥조는 더욱이 품
속기량과 녀조교풍 스킨를 유장하여 죄악을 미워하기를 스갈(蛇蝎)코치하
며 죄악에 디하야는 인정도 도라보지 안이하난 성품으로 조기의 집안에서
여초흔 부정흔 스실이 낫하남을봄이 그당시에 분통한 마음이 어디다 비하리
오 조기는 도저히 썩지못할 슈육을밧아 이세상에 얼골을 들지못하게 될뻔한
이라 원리로 품속을 기량하며 녀조교풍의 두스업으로 써 나의일평생 스킨
로 하고저하던몸이 조기집안에 단속을 능히못하야 소장에서 이와갓흔 루츨
흔변이 낫스니 무슴면목으로 교풍스업(矯風事業)에 종스하리오 나의몸은 임
의 사회덕즈살(社會的自殺)을 당하엿다하야 그부인의 루루복죄하고 이원하
는것을 물너치고 천척의 만류하난 충고도 듣지안이하고 드덕여 그부인은 리
혼하얏스며 버살과 교풍의 스킨도 일절사퇴하고 이세상에 관계를 안이하
고 이의골로 내려오이러라

일성을 풍기교정(風紀矯正)하난 스킨에 종사하야 점점진취되야 오날날에 할

일업시 관계를 돈게 되었스니 그때에 분홍과 원홍은 마음이 엇더하리오 다형이 그부인의 리혼일이 외간에는 정협관의 무정참혹한 성질로 인연됨이라 비평하나 그가 정에서 부인의 품행부정하였던일은 아지못하였더라 그러나 정옥주는 별로히 발명코지 하지도 안이하며 실망한듯해 부인을 이별하고 드디여 동양만유(東洋漫遊)의 길에올나 청국인도를 만유하고 금년 삼월에 다시 도라왔다가 서울공진을 실행하여 한적한세월을 보니고즈 가장 흥정하고 지니는 김승지의 사는 공주지방으로 식로이 별장을 건축하고 몸을 숨기여 산수와 서적으로 벗을 짓고즈 흠이러라

데칠회

종이품 전협관 정옥주는 경성대사동 본저는 신임하는 문인에게 맛기고 자기는 로복과인만 다리고 공주읍니로 이접하였는디 그곳에 일은후 오륙일을 지니여 비화란만한 정원에서 성대헌 원유회를 비설하고 읍중 남녀로소를 모다 청하여 접티하여 향당제인과 친밀이 지니기를 원함이라 이 지방에는 자고로 경성 헌혁한 사람이 이접하여 오는일이 잔혹잇스되 식로 친밀은 도모지 못하고 본도인과 항상하여 이 지니는 사람이 만러라 그러나 이번에는 식로이 별장을 건축하고 온지방에게는 생각도 안이하고 듯지도못하든 덩중헌 향응을 밧아 공주일읍 사름들이 양일동안을 절겁게 보니고 그후는 촌々마다 좌

석에서 원유회(園遊會)의 소문 안이나는디가 업스니 정협관의 인망(人望)은 일읍에 가득하고 그풍치의 헌양함은 한번봄의 경이지심(敬愛之心)이 스스로 일어느니 정옥주의 인물은 누안이 총찬하리 업더라

그읍니에사는 리과장도 김승지를 신용함과갓치 정협관을 기쁘히신용하며 리과장은 순실한 인물이라 정협관을 존경하는 마음이 타인보다 더욱은근하여 맛노보는 사름마다 정협관을 총찬하는 말이라

『정협관 갓흐신이는업서 절므신러에 지위도 높거니와 위인도 단정엄숙하고 하향사름의게 언어수작이 공순하고 정다와서 조곰도 교흔티도가업고 소탈하니 그갓흔 귀인으로도 외국가서 공부를 잘히와서 아모도룩이모르느니 벱성을 써우쳐주려고하니 그런량반은 참 본밧을만한 사람이야 다른사름갓흐면 지위가 그만하고 문벌이 그러케쫓코 지산이 누거만이니 제가 제인체호련만은 조곰도 그러치안코 요전에 잔치할씨도 초동민들의게 친히술잔을 드려서 권하니 그런소탈한 량반은 처음보아』

하더 극구찬양하니 이말은 입으로만 하는말이 안이라 실로빋속으로 곱압게 녀이여셔 우러노오는 말이라

정옥주는 공주일읍에서 이와갓흔 대환영과 대존경을밧고잇스나 조곰도 마음 위로치 못한다 전일그부인의 일로인하여 정협관의 마음은 더욱이 링담



한여 일반 여자의게 덕흐마음이 심히 유쾌치못하여 녀조라하는것은 모다 더
 러운물건으로 돌려보내며 지금까지 종스흔든 녀조교풍회의 스업도 도로혀
 남뭇그럽게 생각하며 그와같은 더러운 녀조와 한가지로 부조 되었든일이 도
 로혀 뉘우쳐 그러흔 녀조로 길게동거하느니보다 일즉히 관계를 싼코 혼조몸
 으로 지니는편이 심이합당하다하여 지금은 한뜻을 서척과 풍월에 못치고 그
 의논 하는바일이업더라 그러나 홀로정협관의 장리를 생각하고 크게근심하여
 요조흔 숙녀가 잇스면 안희를 삼게하여 지금까지 정옥조의 마음에 가득흔
 불을흔 한기를풀고 봄날과같은 온화한 가정의 절거움을 알게하여 다시사회
 에 나아가 자위와 권능을 회복하고자 고심하는 사람은 그고모 김승지의 부
 인이라

데팔회

그고모는 날로 정협관집에와서 주부업는식집에 서설호일을 보습혀 주느터
 이라 이날도 또한 정협관의집에 일으러 가간스도 보아주려니와 제일 정옥조
 마음을 돌니여 다시취쳐하기를 권고코조흔이더라

잠을써여 기지키 한번 길게켜고 다른곳으로 다라간후 흰나뉘 두어마리는 월
 々날아 쇠잔흔 빛스이로 왕리하니 이것이 진실로 한적흔 봄날경치러라
 이정원 올은손편으로 슈간초당이 슈목스이로 싸로잇스니 벽상에는 강티공이
 위슈변에서 고기나는 죽조를 걸어잇고 정면으로는 꿩기시작하는 영산홍한
 분을 노아잇스며 영창문을 여러젓기고 문압호로 갖가히 화류척상 한좌를서
 양비단보를 덮혀잇는디 척상에 몸을의지하여 서양서척을 펼쳐놓코 정신업시
 탐독하는 사람은 그집주인 정협관이라 몸에는 극히 검소히 의복을입고 얼굴
 빛은 조곰 검은편이나 입살은붉고 눈은 영민하며 미간에는 엄숙흔 기운이
 낮하나서 름々흔 기운이 능히 사람을 향복바들만흔 인물이라

『밤낮 공부만하나』

한며방으로 드러오는 사람은 나히는 스십여제나 되었는디 기는적도크도안이
 혼 점잔스러운 부인이나 면슈겹쳐고리에 옥양목치마입고 눈스병이잇는지도
 랑면슈 슈건으로 조조 눈을써스며 정협관의 엽혜안지니 이부인은 김승지의
 부인이오 정협관의 고모되는 부인이나 교육잇고 어질기로 유명한 부인이라
 정협관은 그고모가 오는것을 보더니 척을얼뚫덥고 몸을일어 마진후 다시좌
 정하며

『아이고 아쥬머니 오섯습닛가 요셔는 녀오근로를 허쥬시니 녀오황송하외다』
부인은 정옥쥬가 권하는 방석우에 안즈며

『쥬구가 다무어신가 안쥬장하는 사람도업는 집안에서 하인만 맛겨셔야 일
이되나 니라도 심에 잘야는디로는 일을보아 쥬어야지 인제는 디강정돈이 된
모양이닛가 오날은 니가와야 별로보살필 일도업지만은 다른의론할 이약이
도잇고 허셔 껌두々々 온길일제』

『네 무슨의론 이심닛가』
항며 고모의 얼굴을 치여다보며

『의론은 츀々항시고 우선 담비나 붓치시오 요셔는 저는 심々히셔 도모
지 못갠디갠셔요 차조오는 사람도업고 혼조안져셔 칭고나 종일씨름을항
고잇시오 오히려 한가히셔 좃습니다』

『산아희가 그렛케 노—한가만히셔야 엇지하나 동리친구들이라도 좀 심방을
항게나그려』

『나는 각금 동리량반들을 츀자가지요만은 그친구들은 별로 니게는 오지를
안이히요』

항며 츀를싸라 그부인을 권하며
『그런디 악가의 의론항실말슴이 잇다항시드니 무슨말슴인지 어셔항시시오』

정부인은 압흐로 갓가히 닥아안즈며

『니말을 쥬셔이 생각을항여 들어쥬게』

『글쥬 무슨말슴인지 항시면 쥬셔히 듯잡시오』

『다른말이 안이라 령감으로 말항면 아즉나희도 껌은터에 일평성을 홀아비
로만 엇지스나 쥬은은츀만—』

항며 말을다 맞치지 못항여셔 정옥쥬는 말을가로츀셔

『안이요 천만에 혼인일절로 말슴항실터이면 말슴도 말으십시오 나는 말셔
마음을 결단항였스닛가 다시는 안히라고는 엇지 안이항겠습니다 공연히심
녀항실것도 업습니다』

항며 그부인이 말할스이가업시 거절한다 정부인은 정협관의 얼굴을 물그림
이 치여다보며

『그것은 무슨싸툼으로 그닥지 심하게 할것이야 무엇인가』

『네! 그것시오 안히라하는것을 엇을싸툼이 업습니다 암만생각을 항여도
안히라 하는것을 나는 엇어셔 아모필요가 업셔요 이렛케 혼조스는것이 좃
치오』

『무슨싸툼으로 그러항지 나는 그소견을 알슈가업네』

데구회

정옥주는 가장링쇼하며

『아주머니께서 알아들지 못하실지경이면 내가 가장가 가지못할 싸리를 더
 강 말씀은 하겠습니 다 아주머니께서도 아시거니와 나는 장가 잘못 들기씩
 문에 사회적자살(社會的自殺)을 당하야 세상에 나서서 엇지 활동을 수가 있
 습닛가 사름이라 하는것은 사회에 나서서 활동을 하야만 안히라 하는것도
 소용이잇지 사회에서 별셔죽어진 사름이 안히는 갖다가 무엇에 씌닛가 이
 것이 안히를 엇지안히 할 리유의 한가지올시다 그리하고 나는 제몸에 받은
 욕은 초치물론하고 집안의 가명(家名)을 더리워 노앗습니 다 그러 우리집안
 으로 말하면 혁혁한 량반의 집으로 티티로 더러운역스라고는 추호만치도
 업든 정가의집에서 티티에 일으려서 씻지못할 추행이 집안에서 낫스니 나
 는 조상에게 티하야 득죄도 만커니와 제 분동혼마음도 정말진정할수가 업
 습니다 그럴지라도 뇌한몸에만 당하는 슈치가흐면 엇덧케던지 참을슈도
 잇겟습니 다만은 아주머니께서도 전일부터 아시거니와 나는 가문(家門)의
 일홈에 티히셔는 한가지 벽이잇셔서 집안일홈을 위하는티는 아모것도 도라
 보는것이 업습니 다 집안일홈을 손상하는티는 인정(人情)도 업고 인정(愛
 情)도 업고 은의(恩義)도 업셔요 이러흔 쟁품인티 그와갓흔 부정흔 안히
 를 엇어와셔 누티로 조곰도 흠절이업든 결백신성(潔白神聖)하는 집안에서

일디 오욕(汚辱)을 당하얏스니 뇌마음이 엇더하겟습닛가 감안히 쟁심각하
 여복시오 제한몸에 명예만 더럽힌것이 아니라 조상에 일홈까지 더럽힌 일
 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절동하기가 이에서 엇지 더 하겟습닛가』

하며 괴석이 심이 격양하며 두셔너점 눈물이 무릅에 썩러진다 정부인은 고
 요히 안져서 죽하의 하는말만 듯고있다 정옥주는 다시말을 이어

『나는정말 조상에 티하야 면목이 업습니 다 이전갓흐면 자쳐라도 하여셔 죄
 를 속하러 할터인티 더구나 무슨얼골을들고 또다시 장가를 들겟습닛가 나
 는 다시 장가를 안이들기로 아조결심 하얏습니 다 이것이 들지의 리유올시
 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번의 당흔일을두고 감안히 연구를하여 보닛가 제
 집이라 하는것은 축량기 어려운 동물인줄을 써다랏습니 다 아이고 아
 주머니 압혀서 이권말씀을 하여셔 죄만하와다만은 나는 아주머니 갓흐
 신 어룬은 진정항복하고 존경하는 터이올시다 그러치만 이것은 일반
 녀즈에 티하여셔하는 말습니 야요 동셔고금을 물론하고 속담의 이르기
 를 제집이라 하는것은 더러운 물건이라 제집의 창주는 씨슬슈가업다 제집
 갓치는근히 숨은사정만은 사름은업다고 여러가지로 제집에게 티히셔 평
 론하는말이 잇더니 나도 인제와셔 과연 그말이올줄을 아랏습니 다 나도
 녀즈 교풍회(女子矯風會)라 하는스업에 관계할썩에 녀즈를 미오연구하야

보았지요 그러나 그썩는 단지 마음으로 의심만 하였지 적당히 해석(解釋)을
 웃지 못하였더니 이번에 니가 실제로 당할 후에 비로소 새다 랐습니다 이 세상
 에 계집이라 하는 것은 제반 못된 것은 은근히 모다 하였면서 입을 썩 씻고 시침
 이를 썩 썩는 물건입디다 이것은 세상에서 문명하고 추앙하는 구미각국
 에서도 계집들의 현실이 거의 모다 이러하단 기에 우리 동양은 녀자의 절
 조(節操)가 오히려 문명하다는 서양보다 일층 나은 줄을 밋었더니 역시 맛
 찬가지일시다 그러 계집의 성질이라 하는 것은 본리가 그러한 것이니 간 동서
 를 물론하고 다 갖출터이지 오 녀오 녀편네를 박살을 주어서 아쥬머니 썩서
 노여울실지도 모로겠습니 다만은 이렇케 말씀을 하지안이하면 녀속마음에
 잇는 주지를 자서히 아라 드르시지 못할 실터이니 간 새리지 안코 말씀하는 것
 이오니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러흔 세상에 밋을 슈업는 계집을 또다
 시 다려와서 다른 사람이라도 결박흔 계집으로 알고 자기도 결박흔 계집으로
 알드리도 그중에 또 엇더흔 비밀사단이 잇슬는지 알슈업스닛가 만일 또 그
 몸예 더러운 흔적이 숨어잇는 계집일 지경이면 그썩는 나는 아조 몸동아
 리가 엇지 되겟습닛가 그러흔 위험한 것을 하여서 안희를 엇을 마음은 업스
 닷가 이것이 셋제의 리유을시다 나는 아세가지 리유를 비척하고서라도 안
 희를 다시 엇을 괴운이 업셔요 그럴썩안이라 할아비로 사는 것이 또 디단유익

훈타가 잇스나 그 말씀은 지금 엇줄사들이 업스닛가 말씀안이 하겟습니다
 정부인은 듯기를 다 할후

『그러면 령감하는 말은 이 말일세 그러 나는 세상에 닛썩긴 사람이오 그들의
 몸이 닛가 안일을 도아주는 안희가 소용업다 하는 것이 쳇지오 또 녀조상부
 모썩 작죄흔 모양이 닛가 다시 안희를 엇지 못하겠다는 것이 들지오 계집이라
 하는 것은 밋을 슈업다는 것이오 정결잇는 계집은 세상에 업슬 모양이 닛가
 경솔이 장가를 다시 갖다가 또 전일갓흔 부정흔 일을 당할가 녀려가 되여서
 안희를 엇지안이 한다는 것이 셋지일 일세 그러 하닛가 아세가지 연유
 로히서 평성을 할아비로 살갓다 하는 말이지』

『일을 터이면 디강녕이 그러하치오』
 『그러면 만일 아세가지 리유를 썩쳐바릴 만흔 또 다른 리유가 잇스면 그썩는
 엇지 하려는가』

『그렇치만 아세가지 썩트릴 리유는 업습니다 만일 잇스면 아쥬머니 말씀
 을 안이들을 사려도 업지오』

『썩 그러하치오』

정우조는 미소를 얼굴에 썩우며

『니마음에 항복할 만흔 리유가 녀々히 잇스면』



데심회

정부인은 서서히 입을여러

『그러나 지금 령감이 흐른말을 저서히 드르니 정말노다! 당연한 말일세 마는 다시 자서히 생각을 하여보면 그러치안이흐 사려도 있네 그사려를 니가 조목조목 말함세 첫저는 세상에나서서 활동을 할수가업다하나 그것은 자기혼조 마음으로만 그러하게 결정할일이 지 당초에 세상에셔야 아는 일도안이오 영감이 지금이라도 나서기만하면 세상에셔는 더욱조와 할것이 안인가 공연히 제가 제몸을 갖다가 망쳐노를 사려는업는니 자기가 무슨부 정한 형위를 흐것도안이오 가령 령감의 말과갓치 도모지 세상에 얼골을 들고나서서 일을 할수업다 흐드리도 사람이라 흐른것은 꼭 세상에나서야 만일을하고 드러안저서는 아모일도 못하나 령감흐는말은 세상밧게 나설 수가업단 말이지』

정옥주는 서슴지안이하고 뒤답호기를

『암 그러하지오 그러나 아쥬머니씩서 잘생각을하여 보십시오 저로말씀하면 풍속기량과 너저교풍혼다는 두가지 스업을 일평생을 할일로 결심하여 서위선량반사회의 부패한 풍속을 문저교정한다고 당당히 현판을걸고 일을 할다가 제집안에서 이런추형이 낫스니 저는 정말 이세상에서 죽은사람



이나 다를것이 업습니다 단지 세상한구석에서 묵숨만 붙어있는 모양이나 내몸에 당히셔 무슨광명(光明)이 잇겟슴닛가 캄캄한 암흑계(闇黑界)에 단 지 붙쳐잇는 몸이올시다그러 사람이란 것이 사회에나서서 활동을히야만 안히라흐는 물건도 소용이 잇지오 그러할뿐안이라 남의 도흔쳐녀를 다려 다가 안히를 숨아가지고 저와갓치 흑동동(黑洞洞)던지에서 살나흐면 그것 도 사람의 할도리가 안이올시다』

『올치 령감의 말이 다올아 그러나 밤낮명예만 가지고 말이지 령감의말은

.....』

『그런사람이 명예를 도라보지 안이하고 무엇을취함닛가』

『응 그것은 오히려 학문업는 이계집사람 나만큼 생각을못하엿네 명예라흐는것은 단지 너몸에만 유익을 돌니저흐는것이 공평한 안목으로 볼것곳 흐면 사람은 명예도 보겟지만은 데일 명심할일이 잇는니 그것은 무엇인고 흐면 제가 이세상에 나올썩에 타고나온 의무(義務)를 다하야 하다흐는 말일세 명예라흐는것은 사람이 지은것이오 사람의 의무라흐는것은 세상에 나올썩에 하느님이 명하신것인디 제가 명을밧아 가지고나온 의무를 다 하느디 무슨 세상밧기나 안이니 할것이 잇단말인가 놓흐신 하느님이 내려 다보시느 아리에는 사회의 리면(裏面)이니 표면이니 서로 구별이 업슬듯

하니 가량 사회의 표면(表面)에서 넉넉사람이면 사회의 리면(裏面)에서
진과력(眞力)도 작하나 만갯는가 이것이 사람치고 데일 첫저로써다를 일일
세그려 사회리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안히는 무슨 소용이나 하지만은 그
러할수록 안히를 잊어서 가정의 자미를 보아야지 령감(靈監)말은 안히서지 암흑
(闇黑)한 생활을 식이는 것이 사람의 참아 할일이 안이라고 하지만은 너편
네의 눈에는 가정이 첫저라네 또는 남편되는 사람이 세상에나서서 벼슬도
하고 사회에도 단여서 세력이 등등한것을 도화하는 사람도잇겟지만은 너
편네의 성품이라 하는것은 열이면 아홉은 다질거운 가정의 저미보기를 원
하는것이오 또는 저미만잇스면 다른것은 더바라지 안이한다네 그러하넛간
령감의 말한 첫저도목은 온당치안라고 생각하네』
단정이안져 나작한말소리로 얼킨실 푸도시 실머리를쳐 리치에 합당하게
하는 정부인의말에 정욱조는 그럴듯이 듣는지 묵々히 안져서 듯더니

『네 아쥬머니 말씀은 다저서히 드렸습시다 아쥬머니 말씀도 일이 그러할듯
합니다 저도 또 할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다듯저은후에 또 말씀을잊
줍겟습니다』

정부인은 담비를 두어목음빨고 다시말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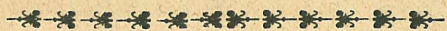
『그리고 조상의 일흔을 더럽혀노앗스넛간 그죄를 속하기씨문에 안히도 다
시 잊지안이 한다하니 그것은 더구나 말이되지안이하네 저의 혈속에서
그런일이 낫스면 그것은 조상의 일흔을 더럽혔다 하겟지만은 남의집에서
다려온 사람에게서 부정흔히실이 낫기로 저식을 하나 나은일도 업는디
당초에 김히싱각 할것도업고 쫓차바리면 그만이지 무슨 큰걱정이잇겟나』

정욱조는 손을 휘々너져으며

『안이오 그런 그러치 않습니다 그흠절이 우리집제계를 더럽혀노앗스니 그
릇에 무든 흔적이나 갖흐면 물에 써서바리면 업셔지려니와 이흔적은 죠희
에 못은 먹이올시다 아모리 쌀기로 그먹이 업셔지겟습닛가 아쥬머니씩서는
듯기도실은 장가말씀을 작고하시니 제성품을 아죽도 저서히 모르셔서 그
리하시지오 앓가도 말씀이올시다만은 제한몸의 명예만 앓기는것이 안이라
원 집안명예를 그중 중하게아는디 넉에와서 썻지못할루명을 당하엿스니
그일을싱각하면 저는 침식을전폐하고 죽어도 시원치안겟습니다 이루명을
잊지하면 회복을하겟습닛가 장가말씀은 다시하시지마십시오 조상님씩디
히서 무슨면목으로 다시계집을 엇는단 말씀이오닛가』

데십일회

정욱조라 하는사람은 원리 명예벽이 심한사람이라 더욱이 한집의명예를 존
중히녁이느마음은 한층더흔터이니 그러하고로 집안일흔을 위하야는 인정도



업고 의리도 업서 다만 몸을희생(犧牲)에 이바지할지라도 마지안이하는 성품이라 정부인도 그쪽하의 이와갓흔성정을 모로는것이 안이로되 도로혀이교벽헌성품을 리용하야 정옥조의마음을 도리키고저함일너라
정부인은 서서히 입을열어

『여보게령감 저네는성미가 너모청박하여서 생각을너모 지녀여흔싸둠으로일의경중을 이져버리고 밋쳐싱각지를 못함모양인가보니 나도우리집일이걱정이되고 집안일흥을 위하느싸둠으로 이의론이안인가 안히를 다시엇지안이하겠다하면 닐들여지로 엇지권하겠나만은 그러면 정가의집혈속이조네뒤에와서 쓴어질싱각을하닛가 마음에망창하기가 싸이업네그려 그나마령감이여러형데나 될것갓흐면 령감하나는 평심을 홀아비로 살드리도우리집안혈속은 전하겠지만은 령감으로말하면 남의집독조가되여서 티되로남의조식다려다가 봉사식이안이하든 우리집안이 조네뒤에와서 쓴어지면 그것은 조상님씩 티하여서 득죄가 안이라고하겠는가』

정옥조는 한참이나 싱각을하더니
『글세 아쥬머니 나도글노하여서 근심을하는 중이올시다 그싸둠으로히셔나도임의 결단하마음을 다시돌녀보기도하엿스나 암만하여도 홀슈가업셔오일이가집으로서 양조라도하면 티야 쓴어지겠슴닛가만은』

『그게무슨말인가 더구나말이 안이되는말일세 일가집으로서 양조를하다하야티々로 양조하지안튼집에서 지금와서 양조로봉사식하는것이 도홀슈가잇나 양조라하여도 갓가온일가에서 다려오면 저이낫겠지만은 갓가온일가라고는 업스니 먼촌양조는 남다려오는심이나 맛찬가지야요 그리도 령감이 다시는 아달을 낫치못할사름이면 그도홀슈업겠지만은 령감은 너손으로 너발등을 씻는격이아닌가 조상님씩티히셔 그런황송을티가 어티잇나』

정옥조는 티답업셔 고기를숙이고 다만안져잇는티 정부인이다시 말을계속하야
『령감의말과갓치 한번더럽힌가명을 다시 씻지못하겠다하니 안히를엇지안코 평심을홀로살기로 집안루명이 업셔지겠나 아모리 그리하다하여도 조곰도 내싱각에는 유익함이업슬듯히』

『그러치만 제한몸의허물은 버슬슈잇지요』
『그리케내가 경중을모른다 하는말이지 그러닛가 조상님씩는 엇더하던지내한몸이나 써싣하게 지녀준말이니 그러면 한집안에티히셔야 무슨유익이잇단말인가』

『글세그러하기에 저도 난처하야하는중이올시다』
『그것이 난처할줄을 알냥이면 한번닐니 다시싱각을하여서 어진안히를엇어셔 봉사스점빈귀을 정성싣하야 가도를정도홀후에 전일에 엇엇든 도치못하』

일흔을 써서 브릴링감을 놓면 그도 도치안이겠나. 죠희에 못은 먹과 갖혀서 한번 무든흔적이 업셔 지지 안이흐다. 하네만은 이후라도 슈선제가 될히셔. 전일보다 더 큰 명예가 세상에 낫하나면 그덕은 전에 있던 조고마흔흔적은 스스로 업셔 지지 안겜는가?」

정옥주는 묵묵히 안졌는디 그부인이 다시 말을 시작하여

『그러한사독에 한집안의 명예를 낮히려 하면 한집안을 주창하는 현철한부인이 있셔서 첫저는 조선의 향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편으로는 집안을 니르켜서 조상씨덕을 존손의 직분을 하여야 올치안이흐가 그러하려면 불가불안하라는 것이 업고서는 안이된다 하는 말일세』

정옥주는 그고모의 하는 말을 이윽히듯더니 눈에는 유예하는 빛치보이며

『아쥬머니 말씀은 다 저세히 듯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당장에 엇지하겠다는 대답은 할슈가 업스니 혼조 더 좀 생각을 하보와야 하겜습니다』

정부인의 마음에는 그족하의 마음이 다소 잔 움작이여 짐을 다형히 녀이여 허우스면서

『그럼 내 리일다시 올것이니 저서이 생각을 낼니 하여보게 닐들 웨 언짜는 말이야 조곰이기로 권할리가 있나』

정부인은 그잇흔날 정옥주를 다시 맛나 저저히이 허관계를 말하엿더라 지성이면 감련이라 하거던 하물며 사름이리오 정옥주는 그고모의 말을 드터여 항거치 못하니 그고모의 열성에 감동이되드리도 저저의 마음을 돌리지 안이치 못하게 되엿더라

그후 몇칠지니야 정옥주는 그고모를 초저와서

『아쥬머니 말씀에 저는 몽롱한잠이 쓰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절잇고 어진녀자가 있나. 우리정가의 집에 들여도 붓그림지안이 할만흔 숙덕이 겸흔사름만잇스면 안하로 마조오기도 하겜습니다. 다만은 이세상에 그러흔녀편네가 잇슬는지. 맞치모로겜습니다. 천벽사름중에 하나나 잇슬지. 만일함부로 엇었다가서 또전과 갓흔일을 당하면 엇지하게오 내싱각에는 녀편네갓치 못지 못할것은 업는줄을 압니다. 아모리 철석갓치 밋엇던 녀편네라도 그가슴속에는 엇더흔비밀스정이 품어잇는지. 모로닛가 나는 정말위히셔 썩장가갓다. 는 말이 안이남니다. 그러』

정부인은 썩썩우스며

『녀편네는 아쥬사름안이로 돌리는 말이로 구만 전에 덴가슴이 되야셔. 그러케 하는 말인게지. 만은 녀편네라고 모다. 그러할리가 있나. 정절잇고 숙덕잇는 녀편네도 하고 만은니. 모다. 녀편네가 다. 허실이 부정흔것들 썩이면 이세상에 한집도 쾌락흔집안은 업게』



정옥주는 그잇흔날 정옥주를 다시 맛나 저저히이 허관계를 말하엿더라 지성이면 감련이라 하거던 하물며 사름이리오 정옥주는 그고모의 말을 드터여 항거치 못하니 그고모의 열성에 감동이되드리도 저저의 마음을 돌리지 안이치 못하게 되엿더라

그후 몇칠지니야 정옥주는 그고모를 초저와서

『아쥬머니 말씀에 저는 몽롱한잠이 쓰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절잇고 어진녀자가 있나. 우리정가의 집에 들여도 붓그림지안이 할만흔 숙덕이 겸흔사름만잇스면 안하로 마조오기도 하겜습니다. 다만은 이세상에 그러흔녀편네가 잇슬는지. 맞치모로겜습니다. 천벽사름중에 하나나 잇슬지. 만일함부로 엇었다가서 또전과 갓흔일을 당하면 엇지하게오 내싱각에는 녀편네갓치 못지 못할것은 업는줄을 압니다. 아모리 철석갓치 밋엇던 녀편네라도 그가슴속에는 엇더흔비밀스정이 품어잇는지. 모로닛가 나는 정말위히셔 썩장가갓다. 는 말이 안이남니다. 그러』

정부인은 썩썩우스며

『녀편네는 아쥬사름안이로 돌리는 말이로 구만 전에 덴가슴이 되야셔. 그러케 하는 말인게지. 만은 녀편네라고 모다. 그러할리가 있나. 정절잇고 숙덕잇는 녀편네도 하고 만은니. 모다. 녀편네가 다. 허실이 부정흔것들 썩이면 이세상에 한집도 쾌락흔집안은 업게』